

민족 정체성의 상징 크로아티아 민속 의상

크로아티아 민속 의상은 농부부터 섬사람, 양치기까지, 그 옷을 입는 이들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다.
더불어 오랜 세월 외세에 시달린 크로아티아 사람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주요 매개체다.

Fabric of a Nation

The rich variety of Croatia's folk costumes reflects the rich variety of the people who traditionally wore them, from farmers to islanders to mountain shepherds.





20세기 전반 유고슬라비아 왕국의 일원이었던 크로아티아는 제2차 세계 대전 후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의 하나가 되었고, 이후 산업화와 근대화의 길을 걸었다. 그 시기에 민속 의상과 민속 무용의 보존과 관련된 여러 단체가 설립되었는데, 그중 대표적인 단체가 1948년 자그레브에 들어선 ‘전통 의상 보존·재건·대여부(약칭 PIRN)’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PIRN의 역할은 박물관처럼 단순히 전통 의상을 수집, 전시하는 데만 그치지 않는다. 물품을 수집, 보존, 복원함은 물론 민속 공연단 같은 단체에 의상을 대여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PIRN은 현재 3만 점이 넘는 전통 의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상 대부분은 20세기 초반 이후에 만들어졌다. 이 많은 의상 중에 가장 귀한 대접을 받는 수집품으로는 100년도 더 전에 트로기르에서 제작한 여성용 의상과 자그레브의 트레슈네브카 지역에서 1876년에 제작한 의상이 있다.

Despite the drive toward modernization in the years following World War II, when Croatia formed part of Yugoslavia, a number of institutions concerned specifically with the preservation of folk costumes and dances were founded. Among these was the Department for Preservation, Reconstruction and Lending of Traditional Costumes (PIRN), founded in Zagreb in 1948. As its name suggests, its focus is not simply to exhibit as a museum might, but to collect, preserve, restore and even lend costumes (to folk ensembles, for example). It now has over 30,000 textiles in its collection. Among the oldest and most treasured items is a woman's costume from Zagreb's Trešnjevka neighborhood that dates to 1876.

LADO, the National Folk Dance Ensemble of Croatia, was founded in 1949. Its collection includes some 1,200 folk costumes — the oldest of which were made over 140 years ago — and its performances cover the folk dances and songs of all parts of Croatia, as well as those of Croatian minorities in Serbia and elsewhere. Before

젤코 마레코비치가 자신의 집에서 '파스'라 부르는 띠를 짜고 있다(왼쪽 페이지). 마레코비치의 아내 빈카는 구슬 장식의 전통 장신구를 만든다(아래).

Željko Mareković weaves a sash called a *pas* at his home in the village of Sesvetski Kraljevec, east of Zagreb (opposite). His wife, Vinka, makes traditional beaded jewelry (below).

젤코 마레코비치는 직접 수리해 복원한 오래된 나무 베틀의 날실 사이로 북을 이동시킨다. ‘파스’라 불리는 넓직한 노란 띠를 만드는 중이다. 그는 구슬 장식의 전통 장신구를 만드는 아내와 함께 크로아티아 수도 자그레브 동쪽에 위치한 세스베트스키 크랄레베츠 마을의 자택에서 전통 의상을 제작한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화려한 크로아티아 민속 의상은 19세기에 발달했다. 당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던 크로아티아는 언어, 문화, 전통에 대한 민족적 각성의 시기를 거치고 있었다. 그런 흐름 속에서 크로아티아 민속 의상은 더는 가난한 농부의 의상에 그치지 않았다. 도시의 지식층이 민속 의상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보다 정교하게 발전시키고, 장식해 나갔기 때문이다. 민속 의상이야말로 민족 정체성의 대표적 상징물이라고 여겼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민족적 각성의 일환으로, 귀족과 도시 엘리트 계층은 전통 의상을 즐겨 착용했다. 초창기에 인기를 얻은 옷은 자수로 장식한, 앞부분이 트인 혈령한 튜닉 ‘수르카’였다. 제1차 세계 대전과 제2차 세계 대전 사이에는 시골 지역에서 여러 민속 축제가 정기적으로 열렸는데, 축제에서 주민들은 현대 의상 대신 민속 의상을 착용하는 흐름에 동참했다.

Željko Mareković works at an ancient wooden loom that he restored himself, shooting a shuttle back and forth across its warp. A broad yellow sash called a *pas* stretches out in front of him. Together with his wife, Vinka, who makes traditional beaded jewelry, he creates items for traditional folk costumes at their home in the village of Sesvetski Kraljevec, east of the Croatian capital of Zagreb.

Croatia's tradition of folk costumes as we know it today developed in the 19th century. At the time, Croatia was under Austro-Hungarian rule but was undergoing a period of national awakening. Broadly speaking, the style of its folk costumes grew out of traditional peasant clothing. The costumes were gradually adopted, elaborated upon and embellished by members of urban intellectual circles and society, who saw them as a potent symbol of national identity. Later, between World War I and II, folklore festivals were initiated in rural areas, where villagers were encouraged to continue wearing folk costumes, rather than adopting modern dress.



방대한 민속 의상을 보유하고 있는 또 다른 단체로 1949년에 창립한 ‘크로아티아 국립 민속 무용단(약칭 LADO)’이 있다. 이 단체는 약 1200점에 달하는 민속 의상을 보유하고 있고, 가장 오래된 의상은 만들어진 지 140년이 넘었다. LADO가 선보이는 춤 공연 종류만 100여 개인데, 이는 크로아티아 전 지역과 세르비아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 사는 크로아티아계의 민속 무용과 노래를 아우른다. 부활절을 앞두고 LADO 단원들은 자그레브 중심부에 있는 교회에서 공연을 했다. LADO에 소속된 합창단 단원들은 하얀 자수 장식으로 유명한 사바장 인근 마을의 전통 의상을 차려입었다.

자그레브의 민속 박물관을 구경하거나 민속 무용 공연을 관람한 사람이라면 크로아티아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민속 의상 스타일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챘을 터다. 일례로 달마티아 내륙 쪽 마을인 브르리카의 여성용 민속 의상은 하얀 드레스 위에 걸치는 기하학무늬의 두툼한 앞치마 ‘프레가차’, 붉은색 자수가 들어간 소매가 넓은 흰색 셔츠, 두툼한 양모 소재의 긴 조끼, 공작 깃털로 장식한 붉은색 모자로 구성된다.

반면 크로아티아 동부의 비조바츠와 인근 마을에서는 여자들이 여러 겹으로 된 흰색 면 드레스를 입는데, 이 드레스는 구멍이 숭숭 뚫린 ‘술링고체’라는 자수 양식이 특징이다. 드레스 위로는 길게 흘러내리는 술이 달린 커다란 스카프를 어깨에 걸치고, ‘레클라’라는 주름이 들어간 화려한 칼라를 목에 두른다. 앞쪽에는 동그란 금색 조각을 장식하고, 알록달록하고 두꺼운 양모 양말을 신은 채, 조화로 만든 관을 머리에 쓴다. 헤어스타일도 독특한데, 앞머리를 일자로 자르고 뒷머리는 두 갈래로 땀아서 동그랗게 감아올린다.

이토록 다양한 스타일이 공존하는 데는 지리, 기후, 지역별 역사와 문화, 무역, 재료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 “크로아티아 동부의 슬라보니아 지역에서는 대마와 아마 등 직접 키운 작물을 이용해 옷을 만들었고, 면과 금실처럼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옷을 장식했어요. 금실은 오스만 제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요.” PIRN 소속인 보야나 폴라코비치 포포비치의 말이다. “반면 목축업이 발달한 디나르 지역에서는 가죽이나 양모로 만든 옷이 많았습니다.”

크로아티아 내륙은 아드리아해 연안이나 도서 지역과는 기후가 완전히 다른데, 이 또한 복식에 분명한 영향을 끼쳤다. “도서 지역과 연안 지역은 지중해 스타일의 옷이 많은데, 가장 큰 이유는 기후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은 해상 무역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비단 같은 귀한 원단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다고 해요. 비단은 비싸기도 하거나와 다른 지역에서는 절대 구할 수 없는 재료였죠.”

Easter, members of LADO gave a concert at a church in central Zagreb. Choir members dressed in costumes from Sunja and neighboring villages on the Sava River that are notable for their white embroidered details.

There’s an enormous amount of stylistic variation between the folk costumes worn in different regions of Croatia. For example, women’s folk costumes from Vrljka (a village in the Dalmatian hinterland) include a thick, woven apron (*pregača*) with geometric patterns worn in front of a white dress; a white wide-sleeved shirt decorated with red embroidery; a long, heavy woolen vest and a red cap finished with a peacock feather.

In contrast, women’s costumes from Bizovac and neighboring villages in eastern Croatia consist of a layered white cotton dress perforated with a style of embroidery known as *šlingoće*, along with a large kerchief with long fringes that’s worn over the shoulders, and an elaborate folded collar, called a *reklja*. These are complemented by rows of gold coins at the front, colorful wool socks and a tiara of artificial flowers that crowns a distinctive hairstyle: trimmed into bangs and straightened at the front, with two thick plaits coiled at the back.

There are a number of reasons for such variations — among them geography, climate, regional history, trade and available materials. In eastern Croatia’s Slavonia region, “People generally made clothing from plant-based materials they had grown themselves, namely hemp and flax, which they decorated using materials that were readily available to them, like cotton and gold thread, the latter showing the influence of the Ottomans,” explains PIRN’s Bojana Poljaković Popović. “On the other hand, in the Dinaric region people mostly bred sheep and goats, and they used skins and wool to produce clothing.”

The climate of inland Croatia is very different from that of the Adriatic coast and islands, and this also had an obvious influence. “On the islands and coast you have Mediterranean types of costumes, mostly because of the climate — but also these people were sailors, and through maritime trade were in touch with different cultures and could get materials like silk, which was expensive and not generally available to people in other regions.”

크로아티아 동부에 위치한 비조바츠 마을의 민속 의상을 차려입은 커플
Ana Drobina and Pavo Begovac model folk costumes from the village of Bizovac, in eastern Croatia.



전통을 기리며 민속 의상은 만들새가 아주 정교하기도 하거나 무척 귀해서 일상복으로 입지는 않는다. 민속 의상의 향연을 보려면 크로아티아 전역에 수백여 개에 달하는 민속 공연단이 출연하는 각종 축제나 기념행사에 가면 된다. 크로아티아에서 가장 유명한 민속 축제는 매년 7월 수도 자그레브에서 열리는 ‘국제 민속 축제’지만, 가장 크로아티아답고 원형에 가까운 전통 의상을 볼 수 있는 축제는 크로아티아 동남부 도시 슬라본스키브로드에서 매년 6월 사흘간 개최되는 ‘브로드스코 콜로’다. 50년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이 축제에는 크로아티아 전역의 민속 무용단이 참여하며, 그들은 슬라본스키브로드의 낡은 요새에서 아름다운 민속 의상을 입고 춤 경연을 벌인다.

민속 의상을 마음껏 구경할 수 있는 다른 전통 축제로는 ‘신스카 알카’가 있다. 이 축제는 ‘신’이라는 마을에서 매년 8월에 열리는데, 기사들이 전속력으로 말을 달리며 작은 고리에 창을 쏘는 마상 시합 장면을 관람할 수 있다. 축제에 참여하는 기사들은 전통 의상을 입은 종자(從者)를 대동하고, 축제 마지막 날이면 기사들도 정교하게 수놓은 어두운 빛깔의 재킷 ‘돌라마’와 털모자 등 전통 의상을 차려입고 경기에 출전한다.

CELEBRATING TRADITION Extremely elaborate and highly valuable, folk costumes are not worn as everyday clothing. Instead they’re worn at festivals and celebrations, mostly by members of the hundreds of folk ensembles found throughout Croatia. While the country’s most widely promoted folk festival is the annual International Folklore Festival in Zagreb, held in July, the true highlight of the folklore calendar is the Brodsko kolo, which takes place over three days in June in the town of Slavonski Brod. Now running for over 50 years, the festival features folk dance ensembles from all over Croatia who perform dressed in beautiful folk costumes.

Other traditional festivals where folk costumes are worn include the Sinjska alka, which takes place in August in the town of Sinj and sees contestants on horseback competing to spear a small metal ring at a thundering full gallop. Each contestant is accompanied by a squire in traditional dress, and on the final day the contestants themselves don traditional costumes, including a dark



‘HSPD 슬레메 세스티네 민속 공연단’의 단원들은 자그레바치코 프리고레 지방의 민속 의상을 제작한다(왼쪽 페이지). 자주 작업 중인 안톤 레인베베르의 모습(위). Members of the HSPD Sljeme Šestine folklore ensemble make costumes from the Zagrebačko Prigorje region (opposite). Antun Leinveber employs an embroidery technique called *zlatovez* (above).

또 고라니 지방에서 진행되는 ‘여왕의 봄 행렬’에서는 정교한 민속 의상과 꽃으로 장식한 모자를 착용한 젊은 미혼 여성들이 집집이 돌아다니며 노래와 춤을 선보인다.

크로아티아의 많은 전통 축제는 민속 의상과 민속 무용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난 1960년대에 생겨났다. 이후 민속 의상과 민속 무용은 줄곧 국가 및 지역 정체성의 중요한 상징 역할을 해 왔고, 1990년대 독립 전쟁 시기와 맞물려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세월이 흐르면서 민속 의상의 소재와 제작 기술이 조금씩 변하고 있지만, 민속 의상을 제작하고 복원하는 일은 지금도 많은 정성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정교하고 고단한 작업이다. 민속 의상은 소수의 전통 복식 전문가에 의해 여전히 수작업으로 제작된다. 전문가 중 상당수는 젊은 세대로 이뤄져 있으며, 여성이 아닌 남성도 많다. 과거에는 전통 의상 제작과 복원이 오롯이 여성의 영역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embroidered *dolama* (jacket) and a fur busby. During the Spring Procession of Ljelje, young unmarried women in the village of Gorjani go from house to house, singing and dancing for their hosts and wearing elaborate folk costumes, including tall hats garlanded with flowers.

A number of Croatia’s traditional festivals were founded in the 1960s, a time when interest in folk costumes and dances was dramatically revived. They’ve maintained their importance as symbols of national and regional identity ever since, an importance further reinforced by the war of the 1990s and Croatia’s subsequent independence.

While some methods and materials have changed over the years, the processes of making and repairing folk costumes remain as intricate and time-consuming as ever. They’re still done by hand by a small number of specialists. It’s notable that many of these specialists are quite young, and male — thus subverting traditional gender roles. In the past, it was exclusively women who made, cared for and repaired traditional costumes.



안툰 레인베베르는 노비자그레브에 있는 자택의 책상 앞에 앉아 ‘즐라토베즈’라는 기술을 이용해 금실로 자수 띠를 만든다. 원래 크로아티아 동부 프트머리에 있는 빈코브치 출신인 레인베베르는 LADO 소속의 무용수이자 가수이며, 지난 6년간 LADO를 비롯한 여러 기관의 의뢰를 받아 즐라토베즈를 이용한 의상을 제작해 왔다. 레인베베르는 독학으로 자수를 배웠다. 그는 “정통 자수 기술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극소수라는 사실을 깨닫고 직접 배우기로 결심했다”고 말한다.

플라코비치 포포비치는 기존 전통 의상을 자세히 연구하고 분석한 뒤 전통 기술과 재료를 활용해 새롭게 제작하는 의상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고 말한다. “아마추어와 전문가를 통틀어 많은 이들이 과거에 제작된 전통 의상의 복원과 보존에 힘쓰고 있어요. 그중 예전에 만들어진 전통 의상을 참고해 최대한 옛 모습에 가까운 방식으로 새로운 의상을 만들어 댈으로써 민속 의상의 보존에 기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전통의 보존과 계승에는 많은 어려움이 수반된다. 가령 크로아티아 최남단에 위치한 코나블레의 오래된 자수 전통은 한 세기 전에 사라졌다. 이 때문에 자수 전문가인 슬라비차 라이코비치는 여성용 셔츠 앞면의 장식 요소인 ‘코나블레 포프르스니차’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스플리트 민속 박물관에서 대여한 원작을 참고해야만 했다.

고르다나 라디체크와 ‘HSPD 슬레메 세스티네 민속 공연단’의 단원 중 일부는 자그레브 인근 지역인 자그레바치코 프리그레의 민속 의상을 직접 제작한다. 이 작업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까다롭지만, 편안한 대화, 맛있는 돼지고기 요리, 집에서 직접 구워 온 케이크 덕분에 작업장 분위기는 늘 명랑하다.

브로드스코 콜로나 여왕의 봄 행렬을 몇 시간만 구경하면 오늘날 크로아티아에서 전통 의상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왜 대중적인 인기를 끄는지 짐작할 수 있다. “크로아티아인은 자신들의 전통 의상이 이처럼 다양하다는 사실을 아주 많이 자랑스러워해요. 그 의상과 별 관련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말이죠.” 플라코비치 포포비치의 말이다.

“오늘날 크로아티아에서 민속 의상은 문화유산과 민족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으로 점차 더 인정받고 있어요.” LADO의 홍보 담당자 리비야즈구리치의 말이다. “많은 가정에서 조상이 착용하던 옷과 장신구를 보존하고 새로운 세대에게 물려주고 있죠. 그래서 전통 유산의 보존과 관련해 우리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해요. 전통 무용과 음악은 물론 민속 의상을 보존하는 일은 LADO와 수백 개에 달하는 아마추어 민속 공연단의 공동 목표예요. 이 단체에 속한 수많은 단원은 이러한 전통이 살아 숨 쉬도록 돕고 있죠.”

글 사진 루돌프 에이브라함

Antun Leinveber sits beside a bright desk lamp in his flat in Novi Zagreb, sewing a band of embroidery with gold thread, a technique called *zlatovez*. Originally from Vinkovci, Leinveber is a dancer and singer at LADO who has been making items in *zlatovez* for LADO and other organizations for six years. He’s completely self-taught. “I just realized it was a technique that very few people were doing authentically and decided to learn it,” he says.

Poljaković Popović points out that new costumes are increasingly being made using authentic techniques and materials, based very carefully on originals. “Of course, there’s still a great number of people, both amateurs and professionals, who work on the preservation of original costumes, but there are also a lot of people who are preserving the tradition of folk costumes by making authentic new ones based on those originals,” she says.

Doing so comes with challenges. Knowledge of an old style of embroidery from Konavle, in Croatia’s far south, vanished well over a century ago, meaning that when embroidery specialist Slavica Rajković works on a reconstruction of a Konavle *poprsnica* (a decorative element that goes on the front of a woman’s shirt), she has to base it on an original piece loaned from Split’s Ethnographic Museum. Gordana Radiček and other members of the HSPD Sljeme Šestine folklore ensemble make costumes from the Zagrebačko Prigorje region (the area around Zagreb). The work is slow, but it’s eased by conversation, delicious charcuterie and homemade cakes.

You only have to spend a couple of hours at an event like the Brodsko kolo or the Spring Procession of Ljelje to see just how important and popular traditional folk costumes remain in modern Croatia. “Croatians are very proud of the variety of their folk costumes — even those who aren’t involved with them in any way,” says Poljaković Popović.

“In Croatia, folk costumes are increasingly recognized as an important part of cultural heritage and identity,” says Livija Zgurić, head of PR at LADO. “Many families keep their ancestors’ original costumes and jewelry and pass them on to new generations. So I believe there’s a bright future in the preservation of our traditional heritage.”

Text and photographs by Rudolf Abraham



‘크로아티아 국립 민속 무용단 (LADO)’은 1200여 벌에 달하는 민속 의상을 보유하고 있다. LADO, the National Folk Dance Ensemble of Croatia, has some 1,200 folk costumes in its collection.